

비즈 패트론 | 공정위 '거래거절' 골프존 피해구제안 기각

'비가맹점 갑질 논란' 골프존, 제재 초읽기

가맹점만 신제품 차별 공급 혐의
공정위, 골프존 시정방안 퇴짜시켜
향후 과징금·검찰고발까지 갈수도

비가맹업소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은 골프존이 제재 초읽기에 몰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로 조사받는 기업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법 위반을 따지지 않고 올해 행사의 계획을 소개했다.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됐다는 것은 골프존이 제시한 피해구제안이 공정위로부터 부적절하다고 '퇴짜'를 맞아 법적 제재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스크린골프업계 1위인 골프존이 비가맹업소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대책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기각되면서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골프존 본사. 스포츠동아DB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거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존은 가맹점에는 신제품 골프 시물

레이터 투비전(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2018년 4월 출시)를 공급했지만, 비가맹점들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비가맹점 업주들은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를 처벌해달라며 2016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올해 4월 현재 골프존의 가맹점은 662개, 비가맹점은 3705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조사 끝에 8월 2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8월13일 골프존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중단됐다. 골프존은 불공정 행위를 인정하면서 비가맹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의의결안에서 골프존은 신제품 구입 하려는 비가맹점이 전체 절반(50%)을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300억원을 출연해 경쟁 매장이 200m 이내에 있는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이 폐업이나 이전을 원하면 장비 매입과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200m 이내 신규 출점 제한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골프존,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 사이의 의견차이가 너무 크며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존도 이것이 최종안으로 더이상 수정·보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수준 등을 결정하는 본안심의에 들어간다. 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하면 골프존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검찰 고발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8일

코스피지수	2308.98	▲	+5.97
코스닥지수	831.85	▲	+2.97
日 닛케이 지수	2만3420.54	▲	+325.87
中 상하이 종합	2699.95	▲	+48.16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98	▲	+0.01
환율 (원·달러)	1124.00	▼	-2.5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3281.41	▼	-85.21

“한국관광 스마트하게”
‘코리아투어카드’ 출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인기 높은 통합 투어카드 ‘코리아투어카드’의 모바일 버전이 나왔다. 한국방문위원회는 18일 한국스마트카드와 함께 안드로이드 OS기반의 ‘모바일 코리아투어카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코리아투어카드’는 티머니 기반의 교통카드에 외국인인 선호하는 문화, 관광, 쇼핑,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종합투어카드다. 한국을 찾은 개별자유여행객들에게 한국여행 머스트-have 아이템(Must Have Item)으로 자리잡아 2017년 1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30만장이 넘게 팔렸다.

‘모바일 코리아투어카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현재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한국, 일본, 필리핀, 홍콩 등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한 중국에서는 유니온페이 공식앱 및 별도 URL 다운로드 가능하다. 앱은 영어, 중국어 간체, 일어, 한국어를 지원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충전 및 환불이 가능하다. 김재범 기자

“종합게임 문화 축제로 발돋움”...지스타, 11월15일 개막

30개국 662개사...넥슨·넷마블 등 참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18일 서울 양재 테케이호텔앤리조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행사의 계획을 소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지스타 2018’은 11월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조직위에 따르면 17일까지 2874부스의

신청이 들어와 이미 지난해 2857부스를 넘었다. 특히 일반관람객(B2C) 전시관은 1773부스로 지난해보다 100부스 이상 늘었다. B2C관에는 넥슨과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펍지 등 국내 게임사부터 에픽게임즈와 XD글로벌, 구글코리아 등 해외 기업들까지 나섰다. 기업간거래(B2B) 관에도 1101부스나 신청이 들어왔다. 이번 행사 참가국은 30개국이며 참가업체는 662개사다.

올해 슬로건은 ‘Let Games be Stars’ (게임 우리의 별이 되다). 메인 스폰서는

행사 최초로 해외기업 에픽게임즈가 선정됐다.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는 4년 연속 트위치가 맡았다.

조직위는 올해 행사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종합문화행사로 키운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이었던 공식 코스프레를 ‘코스프레 어워즈’로 확대 운영한다. 또 EA의 공식 e스포츠 행사도 치른다.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장은 “단순히 규모를 키우기보다 관람객이 체험을 잘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회가 중요하다”며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종합 게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로 11월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행사를 소개하는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장. 사진제공 | 지스타조직위원회

임 문화축제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추석이 즐겁다’...실속있는 카드사 이벤트

해외여행 특화·승차권 할인 등

카드업계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몰이에 나섰다.

롯데카드(사진)는 26일까지 롯데마트에서 30만원 이상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30% 할인해 준다. 또 22일까지 롯데백화점에서 한우 선물세트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전국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상품권 증정 또는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마트는 24일, 홈플러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추석 연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10월31일까지 전 세계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에서 숙박 예약 시 최대 10% 할인해 준다. 이밖에 BC카드의 30일까지 추석 귀성 고객에게 승차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응모 후 코레일, SRT, 고속·시외버스 승차권을 BC카드로 누적 3만원 이상 결제하면 10% 청구할인 혜택을 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명절 특수를 통한 단기 실적 강화와 고객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기차표 구매·추석특가 상품’ 들어간 스미싱 주의하세요

스팸자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운영하는 후후엔컴퍼니는 추석을 앞두고 주의할 스미싱 문자와 피해 예방법을 소개했다. 올해는 ‘기차표 구매 및 추석특가 상품’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 유형의 스미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추석 급전거래가 활발한 점을 노린 불법 도박사이트의 스팸문자도 스미싱 사기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출처가 의심스럽거나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의 경우 절대 클릭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 지인에게서 온 문자도 인터넷 주소가 들어있으면 클릭 전 확인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스미싱 탐지 기능이 포함된 후후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김명근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트럭이 새롭게 선보일 첨단 주행 및 안전 기술 중 하나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5’는 레이더와 카메라로 보행자를 인식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진제공 | 메르세데스-벤츠

메르세데스-벤츠, 상용차 혁신기술 대거 선보인다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등 공개

메르세데스-벤츠 트럭이 20일부터 27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IAA Commercial Vehicles 2018’에서 상용 트럭의 미래를 보여주는 첨단 주행 및 안전 기술을 선보인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자동차가 독립적으로 제동, 가속, 스티어링이 가능한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양산형 부분 자동주행 기술로 액티브 레이더와 카메라를 통해 전달되는 도로 정보를 결합해 차량의 움직임을 모든 속도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제어한다. 운전자가 일정 부분 개입하기는 하지만 사고 예방과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5(ABA 5) 기술도 선보인다. 레이더와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작동되며 걸어가는 보행자까지 인식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사이드 미러를 없앴 혁신적인 미러 캠 기술도 공개했다. 차량 외부의 카메라 2대와 운전석 내부에 장착한 2개의 15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측후방의 시각 지대를 없애고 운전자에게 향상된 시야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멀티 미디어 콕핏도 눈길을 끈다. 2개의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통해 운전자는 운전 중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운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